

# '여성가족친화 도시' 탄력

### 익산시, 여성·아동·청소년·다문화 가정 공모 잇따라 선정

익산시가 여성, 청소년, 다문화 분야 정부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한층 강화해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시는 여성과 아동, 다문화 가족까지 아우르는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여성가족친화도시 구축에 속도를 더했다. 가족들의 자녀돌봄과 교육, 가족 상담까지 한 곳에서 지원하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이 모험동 옛 농악전수관 자리에 건립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생활 SOC공모사업에 응모해 선정된 것으로 3년간 국비 15억원을 포함해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오는 2023년 완공될 예정이며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존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와 여성회관,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가 한곳에서 윈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은 물론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지원정책 발굴에 주력한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출산 및 돌봄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익산시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공동육아나눔터 구축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말부터 초등학교 돌봄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을 운영하고 있다.

맞춤형 돌봄교실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시는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유아와 초등학교생을 함께 돌볼 수 있는 우리마을 돌봄공동체를 오는 6월까지 2곳을 추가

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혼모들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미혼모가족복지시설'이 이달 본격적으로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곳은 지난해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을 통해 운영여부가 확정됐으며 국비 2억3천8백만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7억8천5백만원이 투입됐다. 지역에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일수 있는 휴식공간이 조성됐다. 생활 SOC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9천8백만원이 확보됐으며 총 1억8천4백만원을 투입된 청소년 작은도서관 '그루터기'가 지난해 12월 문을 열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원과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전용 공간도 마련됐다. 익산시는 지난 2월 관련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7천만원을 확보했다. 총 사업비 1억원이 투입되는 이

번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유롭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공간과 함께 인터넷수강, 직업체험, 검정고시 등을 준비할 수 있는 학습 전용공간이 들어선다.

익산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하는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기초 인프라 조성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7천5백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에 따라 남중동 교복거리에 글로벌 하늘침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익산역에 들어선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와 다문화가족 소통공간인 '다가온'도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가 여성, 청소년, 다문화 분야 정부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한층 강화해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 군산시, 재생에너지 연구&실증 클러스터 조성 속도

### 6개소 5,500억 규모 연구단지 조성, 국가 연구과제 추진

군산시가 약 4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새만금 일원의 재생에너지 연구&실증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새만금 산업단지 연구 용지에 약 1,000억 규모, 4개의 재생에너지 관련 국가 연구기관이 유치를 확정 짓고,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연구&실증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회복에도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총 사업비 약 3,000억 규모의

에너지 공급·전달·소비 단계를 포괄하는 개방형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인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사업과, 약 1,500억 규모의 새만금의 재생에너지원과 연계한 그린 수소 생산 실증 및 상용화 기반을 조성, 관련 기업, 기관의 통합단지를 구축하는 그린 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종료로, 국가 보조사업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방문 건의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새만금

일원의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 이후 시민들의 큰 기대를 모았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 되면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고군산군도 해역에 해상풍력 사업 실증기술 개발과 실증단지 후보지 발굴 등을 위한 3건의 국가 연구과제에 선정되어 참여하고 있고, 연구과제가 완료되면 국내 해상풍력 제품 실증 및 인증, 주민 상생 방안 마련으로 지역의 해상풍력 사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모래놀이터를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 군산시, 어린이공원 모래놀이터 소독

군산시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모래놀이터를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는 어린이공원 내 각종 이물질 및 동물 배설물, 기생충란 등으로부터 오염의 우려가 있는 모래놀이터를 대상으로 모래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관내 공원 모래놀이터 27개소 5,200㎡ 면적에 대해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모래소독을 실시하며, 상반기는 오는 29일부터 실시해 다음달 6월 26일까지 모래소독을 완료할

예정이다. 모래소독 방법은 토양관리기로 놀이터 모래를 30cm 깊이로 파서 뒤집은 다음 유리, 배설물 등 각종 이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모래를 위 아래로 뒤집어 통기성을 높이고 수분 배출을 쉽게 하며 탄성도를 회복한다. 이어 모래속에서부터 고온스팀을 분출해 세균 및 기생충 등을 살균, 소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모래소독 완료 후 모래 시료를 채취하여 기생충(란) 검사를 실시한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 보건사업 '기지개'

### 컴터 프로그램 등 점진적 재개

익산시 보건소는 코로나19로 잠시 중단했던 다양한 보건사업들을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에 따라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그동안 코로나19 감염병 차단에 전념하며 일부 업무만 수행해 왔으나, 지난 25일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경로당 운동교실사업, 치매안심센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집중 관리 대상자를 위한 필수 방문 서비스만 제공하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6월 정상화 한다. 이에 따라 건강취약계층 신규 발굴 및 등록 관리를 점차 늘려갈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교육 및 건강관리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건강진단, 통해 건강위험요인 보유자(혈압, 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위험군)로 판정 될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비대면 건강

관리 서비스로 모바일 앱과 스마트폰이 연동되는 활동량계를 활용하여 진단인력이 한 팀으로 짜여 6개월 동안 운동, 영양 등에 대해 1:1 건강 코칭 및 전문 상담을 실시한다. 현재 대상자를 모집 중이며 6월 12일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운동 교실(30개소)을 6월 1일부터 시작한다.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운동 교육을 통해 평형성, 근력, 유연성을 향상시킨다.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21일까지 신청한 15명에 대해 25일부터 2개월 간격으로 3회 운영을 시작했다. '몸과 마음 청춘교실'에서는 혈 자극을 주는 총명침 실시로 기억력 상승 효과와 함께 중풍·치매예방을 노린다. '갱년기 한방으로 날리자 교실'에서는 갱년기 완화를 위한 지식 칩 및 다양한 대처요법을 알려주어 갱년기 증상 완화 및 우울증 예방을 돕는다. '관절 튼튼 교실'에서는 기공체조를 통해 유연성 및 근력을 강화하고 각각 특성에 맞는 건강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익산=장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다중이용 공공시설 개방 익산시 신중히 검토 중

익산시가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산발적 증가 추세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다중이용 공공시설 단계적 개방을 놓고 신중히 검토 중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보석박물관, 왕도역사관, 용포 캠핑장,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시설,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등 14개 시설은 지난 5월 6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당초 5월 25일 개강을 준비했으나 6월 1일 이후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별 개강을 결정한다. 여성회관도 6월 1일 이후 개관을 검토한다. 실내체육시설인 문화체육센터(부송동), 국민생활관, 올림픽스포츠펠드(함열)는 6월 1일까지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본 후 6월 3일 개강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때에도 수영장과 사우나 시설은 시민 안전을 위해 제외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경로당 포함), 종합사회복지관(원광·동산·부송)은 별도의 정부 방침을 기다리는 중이다. 예술의 전당은 6월 2일부터 대관 공연만 진행하고, 시가 직접 추진하는 기획공연은 여전히 보류 한다. /익산=장양원 기자

### 익산시 주차환경 개선

익산시가 도심 주차공간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열악한 주차환경 개선에 나선다. 이를 토대로 고질적인 불법 주차차와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등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시는 27일 정현을 시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및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이번 용역은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200여개의 블록을 나눠 주차시설 현황과 수요를 파악했다. 용역 최종 결과에 따라 단계별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기존의 일부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변경하고 흙썩 주차대를 적용해 주차 면수를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